

한국 대학생의 자기관과 감정표현불능증의 관계: 상호독립적 자기관 결핍에 따른 정서표현양가성 및 정서억제의 매개 효과*

권 소 영 광 자 랑 김 비 아 이 동 훈[†]
부산대학교 심리학과

감정표현불능증은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그것을 언어로 표현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증상을 의미한다. 동양인들의 감정표현불능증 수준은 서양인들에 비해 일반적으로 높은 것으로 보고되어 왔다. 최근 미국에서 진행된 한 조사연구는 동양인의 높은 감정표현불능증 수준이 집단주의 문화에서 발달하는 상호협조적 자기관의 영향이라고 제안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 대학생들의 상호독립적 및 상호협조적 자기관과 감정표현불능증 수준 및 정서표현양가성과 정서억제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상관관계 분석 결과, 한국 대학생들의 감정표현불능증 수준은 상호협조적 자기관과 상관이 없었으며, 오히려 상호독립적 자기관과 뚜렷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게다가 상호독립적 자기관은 정서표현양가성 및 정서억제와도 상관관계를 보였다. 따라서 상호독립적 자기관과 감정표현불능 수준의 부적 관계에 대한 정서표현양가성 및 정서억제의 이중 매개모형을 설정하고, Hayes와 Preacher (2014)의 Process 분석을 통해 매개효과를 추정하였다. 그 결과 상호독립적 자기관의 결핍은 감정표현불능증 수준을 높이는 직접효과도 유의하고, 정서표현양가성과 정서억제를 매개로 한 간접효과도 유의하였다. 추가적으로 간접효과를 분석하였을 때, 정서표현양가성의 단일 매개효과와 정서표현양가성을 경유한 정서억제의 이중매개효과가 유의하고, 정서억제에 의한 단일 매개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상호독립적 자기관 수준이 낮을수록, 정서표현양가성이 높아져서, 혹은 높아진 정서표현양가성이 정서억제 수준을 높여 감정표현불능수준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나타낸다. 본 연구의 결과는 현재 한국대학생들이 겪는 감정표현의 어려움이 전통적인 집단주의 문화의 상호협조적 자기관에서 기인한다기 보다, 상호독립적 자기관의 결핍에서 유발되며, 높은 정서표현감등과 과도한 정서억제로 이어져 감정표현불능 수준을 높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주요어 : 상호독립적 자기관, 상호협조적 자기관, 감정표현불능증, 정서억제, 정서표현양가성

* 본 논문은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14S1A5A8012926).

[†] 교신저자 : 이동훈, 부산대학교 심리학과,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산대학로 63번길 2

E-mail : dhlee@pusan.ac.kr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그 과정에서 크고 작은 감정의 기복을 경험한다. 다양한 사회적 상호작용 과정에서 자신이 경험하는 감정이 무엇인지 인식하고, 그리고 그것을 대화 상대방이나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 아니면 스스로 억제, 조절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특히, 감정표현을 외부 사건에 대한 개인의 자연스러운 정서적 반응이라 여기지 않고, 대화 상대방이나 주변 사람들의 감정이나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동이라 여기는 문화에서는 더욱 민감한 문제이다. 개인이 느끼는 감정표현의 어려움이 일반적인 수준을 넘어 병리적인 수준까지 이를 때 이를 지칭하는 용어가 있는데, 감정표현불능증(Alexithymia)이 바로 그것이다.

감정표현불능증(Alexithymia)은 그리스어로 ‘정서를 언어화하지 못한다(no words for feelings)’라는 뜻으로, 자기 자신의 감정을 어떤 구체적인 정서로 인식하고 그것을 말로 표현하거나 설명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심리적 결함을 나타내는 용어이다(Sifneos, 1973). 이것은 Sifneos(1973)가 정신신체 장애(psychosomatic disorder) 환자를 연구하면서 제안한 정신분석학적 구성 개념으로, 불안과 우울 같은 심적 갈등을 피하기 위한 방어기제로 발달하는 신경증 환자의 성격 특성을 지칭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그러한 고전적인 정신분석학적 해석 보다, 정서에 대한 정신적 표상을 구성하는 인지 과정의 결함으로 생기는 복합적인 정서 조절장애로 이해되고 있다(Taylor & Bagby, 2000).

감정표현불능증의 현대적인 해석은 Taylor와 그의 동료들에 의해 주로 이루어졌는데, 그들에 따르면 정서를 자주 표현하지 않고 억제하

면 정서에 대한 정신적 표상이 구성되지 못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자신 혹은 타인의 정서도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고, 그로 인해 정서를 제대로 표현하지도, 조절하지도 못하게 된다는 것이다(Taylor, Bagby, & Parker, 1991; Bagby, Parker & Taylor, 1994). Taylor 등의 해석이 흥미로운 점은 정서표현 억제로 인한 문제를 고려할 때, 정서 인식과 표현을 각각 따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의 유기적 관계에 주목하였다는 것이다. 자의든 타의든 갖은 정서 표현 억제는 자신의 감정을 억제함으로 인해 생기는 정신적 스트레스만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 정서 개념 형성을 방해하여 자신 및 타인의 정서에 대한 이해의 결핍, 그리고 이로 인한 공감의 부족 등과 같은 대인관계 문제까지 유발할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신현균, 원호택, 1997; 최해연, 민경환, 2007; 하창순, 박주하, 2011).

감정표현불능증의 측정 도구로 가장 널리 사용되는 것은 Bagby, Talyor, Parker 등이 개발한 20문항으로 구성된 토론토 감정표현불능증 척도(Toronto Alexithymia Scale 20 items: TAS-20)이다(Bagby, et al., 1994). TAS-20은 세 가지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 느낌을 인식하는 것의 어려움(difficulty in identifying feelings: DIF), 2) 느낌을 기술하는 것의 어려움(difficulty in describing feelings: DDF), 3) 외부 지향적인 사고 방식(externally oriented thinking style: EOT)이 그것이다. TAS-20은 16개국 이상에서 번역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여러 언어권에서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증되었다(Taylor, Bagby, & Parker, 2003).

TAS-20이 다양한 언어로 번역되어 사용되는 것은 감정표현불능증이 어떤 문화에서라도 발생 가능한 보편적 현상임을 알려준다(Taylor et

al., 2003). 하지만 감정표현불능증의 전체적인 수준 및 각 하위 요인들의 평균점수는 문화권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는데, 주목할 점은 동양의 집단주의 문화권의 감정표현불능증 수준이 서양의 개인주의 문화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이다(Dion, 1996; Le, Berenbaum, & Raghavan, 2002; Ryder et al., 2008; Dere, Falk, & Ryder, 2012).

Dion(1996)은 영어 원어민 화자보다 중국어 원어민 화자들의 감정표현불능증 수준이 유의하게 높음을 보고하였고, Le와 동료들(2002)은 유럽계 미국 대학생들에 비해 아시안계 미국 대학생들 그리고 말레이시아 대학생들의 감정표현불능증 수준이 높다고 보고하면서, 이러한 감정표현불능증의 문화차는 부모의 정서사회화(parental emotion socialization) 정도에 의해 매개된다고 보고하였다. Ryder와 그의 동료들(2008)은 동양 사람들이 감정표현불능증 점수가 높은 것은 자신의 감정보다 주변 사람들과 관계 및 집단 전체를 먼저 고려하는 동양 문화의 영향이라고 설명하였다(Ryder et al., 2008; Dere et al., 2012). 이러한 감정표현불능증 수준의 동·서문화차는 감정표현불능증의 원인에 개인의 정신병리적인 소인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인 요인이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을 암시한다. Kirmayer는 일상적인 의사소통 과정에서 개인의 감정 표현에 대한 암묵적인 억압과 통제가 사회문화적 차원에서 이루어질 경우, 정서 개념의 인지적 정교화를 회피하는 경향성이 사회적으로 학습되어 결과적으로 그 문화권에서 감정표현불능증 출현 빈도의 증가나 증상 확대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Kirmayer, 1987; Kirmayer & Robbins, 1993).

최근 Konrath, Grynberg, Corneille, Hammig, &

Luminet(2011)은 감정표현불능증과 문화적 자기관(self-construal)의 관계를 살펴보면서 동양의 집단주의 문화에서 강조하는 상호협조성의 사회적 비용(social cost of interdependence)으로써 감정표현불능증이 증가할 수 있다는 흥미로운 주장을 담은 논문을 발표하였다. Konrath 등(2011)은 Markus와 Kitayama의 자기관 이론(Markus & Kitayama, 1991)¹⁾을 바탕으로 상호독립적 자기관(independent self-construal) 및 상호협조적 자기관(interdependent self-construal)과 감정표현불능증의 관계를 두 번의 설문조사 연구를 통해 알아보았다. 첫 번째 설문조사 연구는 미국 미시건 주의 성인들을 대상(주로 백인)으로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참가자의 상호독립적 자기관이 낮을수록($\beta = -0.38, p < .01$), 상호협조적 자기관이 높을수록($\beta = 0.38, p < .01$) 감정표현불능증 수준이 높아지는 것을 회귀분석을 통해 확인하였다. 두 번째 연

1) Markus와 Kitayama(1991)의 이론은 국내 심리학 및 인접학문에 널리 알려진 이론이나 self-construal 및 independent self-construal과 interdependent self-construal 과 같은 핵심 용어들의 번역은 일관되지 않다. self-construal은 자기(혹은 자아)해석, 때로 자기개념으로 번역하여 사용된 바 있고, independent self-construal에서 independent는 ‘독립적’, interdependent self-construal에서 interdependent는 ‘상호의존적’으로 주로 번역하여 사용된 저술들이 다수 존재한다. 본 논문에서는 한성열, 한민, 이누미야 요시유키, 심경섭(2015)의 문화심리학 저서에서 사용한 번역어, 즉 self-construal은 ‘자기관’으로, independent는 ‘상호독립적’, interdependent는 ‘상호협조적’으로 번역하여 사용하였다. 그 이유는 한국인의 문화적 자기관 연구를 지속적으로 연구해온 저자들이 이 용어들의 번역 문제를 인식하고 밝힌 견해(한성열, 한민, 이누미야 요시유키, 심경섭, 2015:145)에 동의하기 때문이다.

구에서는 유럽계 미국인뿐만 아니라 아시아인 및 아시아계 미국인 등 다른 인종 사람들을 설문조상으로 다수 포함하였는데, 이때 참가자의 두 가지 자기관 점수를 설명 변인으로 투입한 회귀모형에서 첫 번째 연구 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얻었다(상호독립적 자기관 $\beta = -0.32, p < .01$; 상호협조적 자아관 $\beta = 0.13, p < .05$). 그러나 참가자의 자아존중감(self-esteem) 점수를 통제했을 때, 상호독립적 자기관의 설명력은 여전히 유의했으나($\beta = -0.16, p < .05$), 상호협조적 자기관의 설명력은 유의수준 아래로 떨어졌다($\beta = .10, p > .05$). 이에 Konrath 등(2011)은 참가자의 상호독립적 자기관 점수에서 상호협조적 자기관 점수를 뺀 차이 점수를 매개 변수로 상정하여 참가자의 인종과 감정표현불능증의 관계를 부분 매개함을 확인하였다.

Konrath 등(2011)의 연구는 동서양 사람들의 감정표현불능증 수준이 차이가 있다는 점을 넘어, 그 차이가 문화적 자기관의 차이에 의해 매개될 수 있음을 밝힌 점이 흥미롭다. 하지만 Konrath 등(2011)의 연구는 개인주의 문화권인 미국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수행된 것으로 아시아인들을 포함하였다 하여도 그 결과를 그대로 수용하기에는 몇 가지 점에서 문제가 있다. 첫째, Konrath 등(2011)의 연구 2에서 포함시킨 동양인들($n=81$)은 대부분 미국에 거주하는 이민자 혹은 유학생 등으로 일반적인 동양인을 대표하는 표본으로 간주하기 힘들며, 이민자들인 경우 그들의 문화적 정체성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지 모호하며, 소수인종으로서 겪을 수 있는 차별 등으로 인한 자존감의 하락 등 여러 가지 가외 변인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자국에서 거주하며 그들의 문화권에서 생활하는 동양인

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이 연구의 주된 주장을 뒷받침하는 결과는 연구2 자료를 통한 매개효과 분석에서 왔는데, 이때 매개변수로 설정된 값이 상호협조적 자기관 점수가 아니라, 상호독립적 자기관에서 상호협조적 자기관 점수를 뺀 상대적 차이값이라는 점이 문제이다. 이렇게 상대적 차이값을 매개변수로 사용하면 저자들의 주장대로 순수히 상호협조성의 문제로만 결론지을 수 없다. 더군다나 방향성은 다르지만 회귀모형에서 상호독립적 자기관의 설명력은 상호협조적 자기관의 설명력보다 오히려 지속적으로 높았고 유의했다. 따라서 보고된 매개효과에 상호독립적 자아관의 효과가 포함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상호독립적 자기관과 상호협조적 자기관 점수를 각각 매개변수로 설정하여 그 효과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으로 동양 집단주의 문화권으로 분류되는 우리나라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상호독립적 자기관 및 상호협조적 자기관 성향을 조사하고 그 점수들과 감정표현불능증과의 관계를 먼저 검토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두 번째 목적은 자기관과 감정표현불능증 관계를 매개할 수 있는 몇 가지 변인들의 효과를 살펴봄으로써, 자기관의 문제가 어떤 경로를 거쳐 감정표현불능증으로 나타나게 되는지 그 과정을 알아보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자기관과 감정표현불능증의 관계를 매개하는 변수로서 정서표현양가성(ambivalence over emotion expressiveness)과 정서억제(emotion suppression)에 주목하였다. 정서표현양가성은 정서 표현과 억제 사이에서 발생하는 심리적 갈등 수준이며 정서억제는 이를 회피 또는 축소하기 위해 사용하는 부적응적

정서조절방식으로, 개인이 가지는 문화적 자기관의 특성에 따라 정서표현양가성과 정서억제 수준이 달라지며, 이를 매개로 개인의 감정표현불능수준이 달라질 것으로 예측하고 그 관계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정서표현양가성은 정서표현에 대한 갈등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때로 정서표현갈등척도로 번역되기도 하는데(예, 하창순, 박주하, 2011), 원 척도를 개발한 King & Emmons (1990)에 따르면, 자신이 느끼는 정서를 표현하고자 하는 목표와 표현 결과를 두려워하여 표현을 억제하려는 목표 사이의 갈등을 말한다. 정서표현양가성이 높을수록 자신의 정서 상태에 대한 인식과 이해가 낮으며, 의사소통에 있어 자신의 감정에 대한 언어적 표현과 비언어적 표현의 일치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Mongrain & Vette, 2003; 박하얀, 정윤경, 최해연, 2015에서 재인용). 최해연과 민경환(2007)은 King과 Emmons(1990)가 개발한 정서표현양가성 척도를 한국 문화 맥락에서 타당화한 후 요인분석을 통해 하위 요인 구조를 확인하고, 정서억제, 경험적 회피 및 다양한 부정 심리적 증상들 간의 관계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 자기방어적 양가성과 관계관여적 양가성이 2요인 구조로 확인되었고, 자기방어적 양가성은 억제적 조절양식과 경험적 회피 모두 높은 상관을 보였으며, 불안과 우울 등 모든 심리적 증상들과 높은 상관을 보였으나, 관계관여적 양가성은 정서 억제 전략 외 다른 심리적 증상들과는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아, 한국 문화에서 대인 관계를 위한 정서표현 억제는 부적응적이지 않을 수 있음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한국의 청소년이나 성인들은 정서표현양가성이 전체적인 수준이 높을 때 심리적 안녕감이 낮았다(박하얀, 정윤경, 최해

연, 2015).

정서억제는 어떤 정서가 발생했을 때 그것의 표현을 의식적인 노력을 통해 억제하는 것을 말하며(Gross & Levenson, 1993), 부정적인 정서 표현의 억제는 부정적인 정서 경험을 감소시키지 못하지만, 긍정적 정서의 표현 억제는 실제로 긍정적인 정서 경험을 감소시키기에 부적응적인 정서조절 전략으로 알려져 왔다(Gross, 1998). 그러나 한국사회에서 정서억제는 정서표현양가성이 높은 사람들이 주로 사용하는 정서조절 전략이지만, 집단주의 문화권에서 대인 관계를 위한 경우 심각한 심리적인 부작용이 없을 수 있고(최해연, 민경환, 2007), 개인의 주관적 안녕감에도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어 항상 부적응적인 정서조절전략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이은경, 서은국, Chu, Kim, & Sherman, 2009). 최근 박하나, 허재홍, 오충광(2017)은 한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정서 종류에 대한 정서 억제와 주관적 안녕감 및 대인관계와의 관계를 살펴보았는데, 정서를 세분화 하지 않았던 기존 연구와 달리 부정-관계정서의 억제는 정서적 안녕감을 감소시킴을 확인하였으며, 이 관계가 대학생들의 문화성향에 따라 달라짐을 보였다. 따라서 정서억제가 주관적 안녕감이나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력을 일반화하여 결론짓기 어렵다. 또한 본 연구에서 초점을 맺고 있는 감정표현불능증과 정서억제의 관계를 한국인을 대상으로 알아본 선행 연구는 쉽게 찾기 어렵다. 서양의 개인주의 문화권과 달리 정서억제가 서로의 관계를 중시하는 집단주의 문화권의 행동 양식으로서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Konrath 등(2011)의 주장과 같이 이것이 개인의 감정표현불능증 수준을 높이는 매개변인이 되는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

본 연구에는 한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상호독립적 및 상호협조적 자기관과 정서표현양가성, 정서억제, 그리고 감정표현불능 성향과의 관계를 알아보고, 상호독립적 또는 상호협조적 자기관과 개인의 감정표현불능 수준의 관계에서 정서표현양가성과 정서억제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한 가지 미리 언급할 것은 본 연구는 한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지만, 현재 이들이 동양의 집단주의 문화 성향을 가졌다고 미리 가정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미 20년 전에 발표된 한규석과 신수진(1999)의 논문에서 Triandis(1996)의 수직-수평, 집단주의-개인주의 문화 차원에서 한국인의 선호가치는 수직적 집단주의에서 수평적 개인주의로 이동하는 점이 보고되었고, 1979년에서부터 2010년까지 약 30년간의 가치관 변화 추이를 조사한 나은영과 차유리(2010)의 논문에서도 전통적인 집단주의 가치관보다 남녀 평등의식 및 개인주의 가치관이 가파르게 상승하였음을 보고하였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대학생의 주관적 가치지향성을 조사한 차혜경(2018)의 보고에 따르면, 현재 대학생들이 지향하는 가치관은 ‘쾌락주의’, ‘성공주의’, ‘물질주의’로 조사된 반면, ‘평범’, ‘리더십’, ‘봉사’와 같은 전통적인 집단주의 가치는 가장 동의하지 않는 가치관이었다. 따라서 현재 한국 사회에서 집단주의 문화가 완전히 사라졌다고 할 수 없으나, 적어도 청년 대학생들이 전통적인 집단주의 문화적 가치를 여전히 선호한다고 하기 어렵다. 따라서 현 연구에서는 한국 대학생들의 상호독립적 및 상호협조적 자기관을 독립적인 변인으로 각각 조사하여 정서표현양가성과 정서억제, 그리고 감정표현불능성향에 대한 관계성을 알아본 후, 그 관계성에 기초하여 변인들간의 모형을 설정하고

검증하였다.

방 법

연구대상

부산지역 P대학교의 262명의 남녀 대학생들이 참가하였다. 이들 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7명의 자료를 분석에서 제외하여 총 255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남자는 97명, 여자는 158명이었고, 평균 연령은 20.02세($SD=2.22$)이었다.

측정도구

자기관

상호독립적 및 상호협조적 자기관은 Singelis(1994)가 개발한 자기관 척도(self-construal scale: SCS)를 안신능(2006)이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이는 상호독립적 자기관을 측정하는 12문항과 상호협조적 자기관을 측정하는 12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문항은 7점 리커트 척도(1: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 7: 매우 동의한다)로 평정되었다. 상호독립적 자기관 문항들은 자기를 다른 사람과 주변 환경과 구분되는 존재로서 인식하고, 자신의 독특성을 추구하며,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존재로서 자기를 인식하는 정도를 측정하며(예, 나는 다른 사람들과 차별되는 독특함을 추구한다), 상호협조적 자기관 문항들은 자기를 다른 사람이나 주변 환경과 연결된 존재로 인식하며, 다른 사람과의 조화와 관계를 중시하는 정도를 측정한다(예, 내가 속한 그룹에서 조화를 유지하는 것은 나에게 매우 중요하다). 원

척도의 문항간 신뢰도(Cronbach's alpha)는 상호 독립적 자기관의 경우 .70, 상호협조적 자기관의 경우 .74이었으며(Singelis, 1994), 본 연구의 문항간 신뢰는 상호독립적 자기관의 경우 0.72, 상호협조적 자기관은 0.68이었다.

정서표현양가성

정서표현양가성은 King과 Emmons(1990)가 개발한 정서표현양가성 질문지(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questionnaire: AEQ)를 최해연과 민경환(2007)이 한국어로 번안하고 타당도 검증을 한 것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원척도는 28문항이지만 최해연과 민경환(2007)은 한국의 문화적 맥락을 고려하여 21문항만을 선정하였다. 또한 이 척도는 정서를 표현한 후의 결과에 대한 두려움을 반영하는 자기방어적 양가성(13문항)과 대인관계 민감성 및 인상관리를 반영하는 관계관여적 양가성(8문항)이라는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기방어적 양가성은 정서적인 표현에 대한 무능감과 정서표현의 결과로써 거부되는 대한 두려움을 측정하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자기방어적 동기에서 정서표현을 갈등, 억압하는 정도를 측정하며(예, 내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싶지만 그로 인해 내 자신이 당황하게 되거나 상처받게 될까 걱정된다), 관계관여적 양가성은 자기보호적인 두려움보다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고려하거나 체면을 유지하기 위해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려는 노력을 반영하는 정도를 측정한다(예, 누군가에게 화를 내고 나면, 그것이 계속 마음에 걸린다; 최해연, 민경환, 2007). 원 척도의 문항간 신뢰도는 .89이었으며(King & Emmons, 1990), 본 연구에서 전체 문항에 대한 신뢰도는 .90, 자기-방어적 양가성 문항의 신뢰도는 0.88, 관계-관여적 양가

성 문항들의 신뢰도는 0.78이었다.

정서억제

정서억제는 Gross와 John(2003)이 개발한 정서조절 질문지(emotion regulation questionnaire: ERQ) 중 정서억제를 측정하는 4문항을 사용하였다(예, 나는 나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음으로써 감정을 통제한다). 본 연구에서는 손재민(2005)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으며, 각 문항은 7점 리커트 척도로 평정되었다. 원 척도의 문항간 신뢰도는 .73이었고, 현재 연구에서는 0.72이었다.

감정표현불능증

참가자들의 감정표현불능증 수준은 한국판 감정표현불능증 척도(20-item Toronto Alexithymia Scale, TAS-20K)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20문항으로 구성된 자기보고식 척도이다. 본 연구에서는 Bagby 등(1994)이 개발한 척도를 이양현 등(1996)이 번안하고 정운성 등(2003)이 타당화한 한국판 TAS-20K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3개의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요인은 감정인식의 어려움(difficulty identifying feelings; DIF)으로 자기 자신의 신체에서 일어나는 감각이나 감정의 변화를 인식하기 어려운 정도를 측정하는 7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예, 지금의 감정 상태가 어떤지 잘 모를 때가 종종 있다), 두 번째 요인은 감정기술의 어려움(difficulty describing feelings: DDF)으로 자신의 감정 상태를 말로 표현하거나 설명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5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예, 나의 감정을 적절한 말로 표현하기 힘들 때가 있다), 마지막 세 번째는 8개의 문항으로 구성된 외부지향적 사고

(externally oriented thinking: EOT) 요인으로 자기 자신의 내부 감정을 살피기 꺼려하고 외부 사건에만 관심을 두는 사고 패턴을 의미하는 것으로 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예, 나는 심각한 드라마보다는 가벼운 오락 영화를 더 좋아한다). 각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 상에서 평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감정표현불능증 정도가 심함을 의미한다. 정운성 등(2004)의 연구에서 TAS-20K의 총점 및 DIF, DDE, EOT의 Cronbach's α 는 0.81, 0.85, 0.77, 0.59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0.83, 0.84, 0.78, 0.42였다²⁾.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분석되었다. SPSS 23을 사용하여 각 척도들의 내적 신뢰도 계수를 확인하고, 기술 통계 및 상관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Hayes & Preacher(2014)의 SPSS Macro 모형 6을 사용하여 그림 1과 같이 연구모형을 설정하고 이에 대한 이중매개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효과의 유의도 분석은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 방법은 Sobel 검증과 달리 분석할 자료의 정규성(normality) 가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정선호, 한동기, 2016).

2) 감정표현불능증 척도의 하위 요인 중 EOT는 여러 선행 연구들에서도 내적 신뢰도가 낮은 것으로 보고된다(Kooiman, Spinhoven, & Trijsburg, 2002). 따라서 각 하위척도와의 관계를 살피기보다 총 점수를 이용할 것을 권장한 Kooiman 등(2002)의 제안에 따라 본 연구에서도 TAS-20 전체 점수로 위계적 회귀분석과 간접 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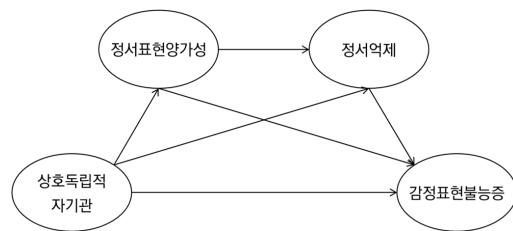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결 과

측정 도구들의 기술 통계

상호협조적 자기관 및 상호독립적 자기관, 정서표현양가성, 정서억제, 감정표현불능증의 총점 및 하위 척도들의 기술 통계치를 표 1에 제시하였다. 한 가지 언급할 것은 현재 자료에서 TAS-20 총점($M=48.38$, $SD=10.83$)은 감정표현불능증 수준의 문화차를 비교 검증한 Dere 등(2012)의 연구에서 보고한 중국계 캐나다인의 점수($M=48.89$, $SD=9.67$)와 유사하게 유럽계 캐나다인의 점수($M=45.39$, $SD=10.48$)보다 높다는 점이다. 이로써 현재 표집된 대학생들의 감정표현불능증 수준이 서양보다 높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상관분석 결과

각 측정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표 2에 제시하였다. 먼저 상호협조적 자기관은 종속변인인 감정표현불능증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었다($r = -.09$). 이는 Konrath 등(2011)이 미국인을 대상으로 진행했던 첫 번째 설문조사연구 결과와는 다르지만, 아시안계를 포함하고 자아존중감 척도를 공변인으로 투입한 두 번째 연구결과와 유사한 결과이다. 따라서

표 1. 각 측정 도구의 기술통계치

측정 개념	하위 요인	문항수	평균	표준편차	첨도	왜도
자기관	상호독립적 자기관	12	53.47	9.21	-0.13	0.03
	상호협조적 자기관	12	53.81	8.47	-0.15	-0.15
정서표현양가성	정서표현양가성(총점)	21	69.00	14.63	-0.39	0.16
	자기방어적 양가성	13	40.63	10.55	-0.36	-0.27
	관계관여적 양가성	8	28.36	5.75	-0.37	0.44
정서억제	정서억제	4	15.01	4.89	-0.14	-0.36
감정표현불능증	감정표현불능증(총점)	20	48.38	10.83	0.08	-0.76
	감정인식의 어려움	7	15.78	5.74	0.39	-0.76
	감정기술의 어려움	5	13.55	5.26	2.22	16.94
	외부지향적 사고	8	19.31	3.89	2.44	0.67

표 2.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n=255)

	1.1	1.2	2	2.1	2.2	3	4
1. 자기관							
1.1. 상호협조적 자기관	1.00						
1.2. 상호독립적 자기관	.13*	1.00					
2. 정서표현양가성	.18**	-.36***	1.00				
2.1. 자기방어적 양가성	.08	-.36***	.95***	1.00			
2.2. 관계관여적 양가성	.31***	-.24***	.81***	.58***	1.00		
3. 정서억제	.10	-.16*	.46***	.42***	.39***	1.00	
4. 감정표현불능증	-.09	-.36***	.62***	.65***	.37***	.37***	1.00

* $p < .05$, ** $p < .01$, *** $p < .001$

Konrath 등(2011)의 최종 주장과 달리, 한국인 및 동양인들의 상호협조적 자기관 점수 그 자체는 감정표현불능증의 유의한 예측변인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현재 결과에서 상호협조적 자기관은 관계관여적 양가성과 유의한 정적 상관이 관찰되었을 뿐($r = .31$), 자기방어적 양가성($r = .08$) 및 정서억제

($r = .10$)와도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었다. 이는 상호협조적 자기관이 높은 사람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나 체면을 고려하여 정서표현의 갈등을 느끼나, 정서표현의 무능감이나 거부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한 정서표현 갈등을 느끼는 것은 아니며, 역기능적인 정서조절 전략인 정서억제를 주로 사용하는 것도 아닌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상호독립적 자기관은 감정표현불능증과 뚜렷한 부적 상관관계가 있었다($r = -.36, p < .001$). 이는 Konrath 등(2011)의 연구 1, 2에서 공통적으로 관찰된 결과와 일치한다. 뿐만 아니라 상호독립적 자기관은 정서표현양가성(총점: $r = -.36, p < .001$; 자기방어적 양가성: $r = -.36, p < .001$; 관계관여적 양가성 $r = -.24, p < .001$;) 및 정서 억제($r = -.16, p < .05$)와 모두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이는 상호독립적 자기관이 낮을수록 자기방어적 양가성 뿐만 아니라 관계관여적 양가성도 모두 높아지며, 역기능적 정서조절전략인 정서억제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매개모형 분석 결과

상관관계 분석 결과 상호협조적 자기관과 감정표현불능증은 상관관계가 없었으나, 상호독립적 자기관은 뚜렷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매개변인인 정서표현양가성과 정서억제와도 유의한 상관관계가 관찰되었고, 각각의 매개변수는 다시 종속변수인 감정표현불능증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관찰되었으므로 매개모형 설정이 가능하다(Baron & Kenny, 1986). 두 가지 매개변인 정서표현양가성과 정서억제는 서로 상관이 높지만($r = .46$), 이론적으로 다른 개념이다. 정서표현양가성은 정서표현에 대한 심리적 갈등을 측정하는 개념이며(King & Emmons, 1990), 정서억제는 행동 차원의 방어기제(Valliant, 2000) 또는 정서조절전략의 하나로써 정서표현 행동 자체를 회피 또는 억압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개념이다(Gross & John, 2003). 따라서 두 매개변인을 상호독립적인 병

렬모형을 가정하거나 정서억제를 정서표현양가성 앞에 두는 것은 이론적으로 적절하지 못하므로, 정서표현양가성을 정서억제 앞에 두는 순차적 이중 매개모형(serial double mediator model)을 연구모형으로 설정하였다(그림 1). 이 경우 두 매개변인(정서표현양가성, 정서억제)을 통한 간접효과는 각 변인의 단일 매개효과와 정서표현양가성을 통한 정서억제의 이중 매개효과로 구성되며, 세 가지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방법을 써서 검증한 후(Hayes & Preacher, 2014, model 6), 최종 모형을 결정하였다.

먼저 참가자의 성별과 연령을 통제된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를 표 3에 제시하였다. 1단계에서 상호독립적 자기관이 낮을수록 감정표현불능증이 유의하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 = -0.39, p < .001$). 2단계에서는 매개변인인 정서표현양가성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상호독립적 자기관과의 관계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 상호독립적 자기관이 낮을수록 정서표현에 대한 양가성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 = -0.57, p < .001$). 3단계에서 상호독립적 자기관과 2차 매개변인인 정서억제와의 관계는 유의하지 않았지만($\beta = -0.03, p > .05$), 상호독립적 자기관을 통제했을 때, 1차 매개변인인 정서표현양가성은 2차 매개변인인 정서억제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beta = 0.15, p < .001$). 마지막 4단계에서 1차 매개변인인 정서표현양가성은 감정표현불능증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beta = 0.35, p < .001$), 2차 매개변인인 정서억제도 감정표현불능증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beta = 0.41, p < .001$). 그리고 독립변인인 상호독립적 자기관의 효과도 유의하였다($\beta = -0.15, p < .05$). 이 결과는 상호독립적 자기관과 감정표현불능증

표 3. 상호독립적 자기관과 감정표현불능증의 관계에서 정서표현양가성과 정서억제의 매개효과

단계	종속 변인	예측 변인	β	t	R^2	F
1	감정표현불능증	성별	1.85	1.38	.14	14.05***
		연령	-.45	-1.54		
		상호독립적 자기관(c)	-.39	-5.65***		
2	정서표현양가성	성별	-1.16	-.63	.13	12.55***
		연령	-.42	-1.05		
		상호독립적 자기관(a ₁)	-0.57	-5.97***		
3	정서억제	성별	-2.69	-4.90***	.30	27.11***
		연령	.27	2.23		
		상호독립적 자기관(a ₂)	-.03	-.93		
		정서표현양가성(d)	.15	8.02***		
4	감정표현불능증	성별	3.43	3.00**	.44	39.03***
		연령	-.38	-1.61		
		상호독립적 자기관(c')	-.15	-2.43*		
		정서표현양가성(b ₁)	.35	8.32***		
		정서억제(b ₂)	.41	3.26**		

* $p < .05$, ** $p < .01$, *** $p < .001$

의 부적 관계는 상호독립적 자기관의 직접효과 뿐만 아니라, 정서표현양가성과 정서 억제에 의해 부분 매개에 의한 간접효과도 있음을 의미한다.

표 4는 세 가지 경로의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부트스트래핑 기법을 이용하여 검증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먼저 ‘상호독립적 자기관 → 정서표현양가성 → 감정표현불능증’으로 가는 정서표현양가성의 단일 매개 경로와 ‘상호독립적 자기관 → 정서표현양가성

표 4. 정서표현양가성과 정서억제의 간접효과 Bootstrapping 검증 결과 (*유의한 경로)

간접 효과 경로	효과 계수 (B)	표준오차 (SE)	95% 신뢰구간	
			하한값	상한값
상호독립적 자기관 → 정서표현양가성 → 감정표현불능증*	-.212	.041	-.300	-.136
상호독립적 자기관 → 정서표현양가성 → 정서억제 → 감정표현불능증*	-.022	.012	-.051	-.001
상호독립적 자기관 → 정서억제 → 감정표현불능증	-.000	.011	-.023	.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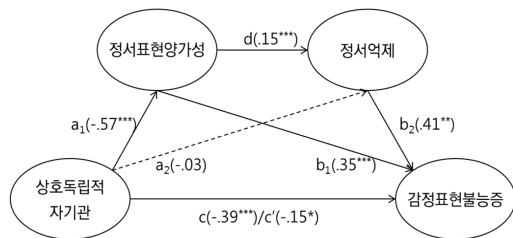


그림 2. 최종모형: 상호독립적 자기관과 감정표현불능증의 관계에서 정서표현양가성과 정서억제의 매개 모형

→ 정서억제 → 감정표현불능증'으로 가는 이중매개경로는 각각 유의하지만, '상호독립적 자기관 → 정서억제 → 감정표현불능증'으로 가는 단일 매개 경로는 유의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한국대학생들의 상호독립적 자기관과 감정표현불능증의 부적 관계에 대한 정서표현양가성과 정서억제의 효과에 대한 최종 모형은 그림 2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즉, 상호독립적 자기관의 결핍은 직접적으로 감정표현불능증을 높이는 효과도 있으며, 간접적으로 정서표현양가성을 높여 감정표현불능증을 높이거나, 높아진 정서표현양가성이 과도한 정서억제로 이어져 감정표현불능증을 높이는 효과도 있다. 그러나 상호독립적 자기관의 결핍이 바로 정서억제로 이어지지는 않음을 보여준다.

논 의

근대 한국 사회는 급격한 정치, 경제, 사회적 변화를 겪으며, 개개인의 삶을 지배하는 행동양식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자본주의를 바탕으로 한 경제적 성장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및 세계화 과정을 거치며, 서구 문

화에 대한 다양한 경험은 사람들의 행동 양식을 크게 바꾸고 있다. 특히 서론에서 언급한 것처럼 현재 청년 대학생들은 전통적인 집단주의 문화보다 서양의 개인주의 문화를 선호하는 것으로 보이며, 쾌락주의, 물질주의, 성공주의와 같이 개인적인 가치와 행복을 추구하는 경향을 보인다(나은영, 차유리, 2010; 차혜경, 2018).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인이 되어 진입하는 조직사회는 여전히 위계적인 집단주의 문화가 남아 있어 세대 및 계층 간의 갈등이 증폭되거나, 의사소통의 단절을 가져오는 경우가 많으며(구자순, 1995), 조직 내 구성원들의 개인주의 성향과 집단주의 성향의 차이가 정서 표현의 정도나, 정서 표현에 대한 태도의 차이를 가져와 의사소통 과정에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김영식, 서용원, 2015).

본 연구는 감정표현불능증이라는 정신병리학적 지표가 서양인들에 비해 동양인들의 수준이 일반적으로 더 높다는 비교문화 연구 결과를 동양의 집단주의 문화에서 기인하는 상호협조적 자기관의 영향으로 설명한 선행연구(Konrath et al., 2011) 결과를 한국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다시 확인해보고자 하는 목적에서 시도되었다. 그러나 연구 결과 Konrath 등(2011)의 주장과 달리 한국 대학생들의 상호협조적 자기관 점수는 감정표현불능증 수준과 상관이 없었고, 오히려 상호독립적 자기관 점수가 감정표현불능증과 뚜렷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상호협조적 자기관은 정서억제와 자기방어적 양가성과도 상관관계가 없었고, 오직 관계적 양가성과 정적 상관을 보였는데, 이는 한국 대학생들의 상호협조적 자기관이 우울이나 불안, 혹은 주관적 안녕감 등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선행 연구들의 결과와 일치

하며(김현미, 방희정, 소유경, 옥정, 김은경, 2006; 양명순, 하정희, 2006; 한아름, 2010), 관계관여적 양가성도 우울이나 불안 등 부정적 심리 지표들과는 큰 상관이 없다는 보고들을 고려할 때(최해연, 민경환, 2007; 하창순, 박주하, 2011), 상호협조적 자기관이 현재 한국대학생의 감정표현과 조절 과정에 직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동양의 감정표현불능증의 높은 수준이 집단주의 문화에서 발달하는 상호협조적 자기관에 기인하다는 Konrath 등(2011) 등의 주장은 현재 연구 결과로는 수용되기 어렵다.

이와 달리 상호독립적 자기관은 감정표현불능증 뿐만 아니라 정서표현양가성 및 정서억제와도 모두 뚜렷한 부정 상관을 보였다. 이는 상호독립적 자기관이 삶의 만족도와 같은 적응적 심리지표와는 정적 상관관계를, 우울, 불안 등 부정적 심리지표들과는 부정 상관을 보인다. 이는 국내외 많은 선행연구들과 수렴하는 결과이다(김현미, 방희정, 소유경, 옥정, 김은경, 2006; 양명순, 하정희, 2006; Norasakkunkit & Kalick, 2002). 김현미 등(2006)은 독립적 자아해석이 자아존중감을 매개하여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준다고 보고하였으며, 양명순과 하정희(2006)는 상호독립적 자기관이 심리적 안녕과는 유의한 정적 상관을, 정서표현갈등과 우울과 같은 부정적 지표들과는 부정 상관을 보고하였다. 한아름(2010)은 정서억제와 심리적 안녕감과 우울을 매개하는 변인은 관계적-상호의존적 자기해석이 아니라 독립적 자기해석이라는 현재 자료와 매우 유사한 결과를 보고하였다. 최근 임소은과 박혜경(2015)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독립적, 상호의존적 문화성향과 부탁상황에서 거절에

대한 반응과 예측의 관계를 살펴보았는데, 이 연구에서도 연구자들의 가설과 달리 종속 변수인 조망수용과 거절에 대한 반응과 예측의 차이에 영향은 준 독립변인은 독립적 문화성향이었고, 상호협조적 문화성향은 별다른 영향력이 없었다.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들과 현재 연구에서 관찰된 한국 대학생들의 자기관 중 감정표현불능 수준 뿐만 아니라 다양한 심리적 지표들과 보다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은 집단주의 문화 성향 혹은 상호협조적 자기관 수준이 아니라, 상호독립적 자기관임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매개변인으로 상정한 정서표현양가성은 정서억제 및 감정표현불능증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는데, 이는 정서표현양가성 수준이 높은 사람이 정서인식의 명료성이나 강도가 낮으며, 정서억제와 같은 부정적 정서조절전략을 사용한다는 선행 연구의 결과와 일치하는 결과이다(진효정, 김정규, 2016; 최해연, 이동귀, 민경환, 2008; 홍주현, 심은정, 2013). 그리고 정서억제는 감정표현불능증과 높은 상관을 보였는데, 이는 부정적 정서조절 전략으로 정서억제의 과도한 사용이 감정표현불능증의 원인 변인이 될 수 있음을 나타낸다(Swart, Kortekaas, & Aleman, 2009).

본 연구에서 매개효과 분석을 통해 최종적으로 제시한 한국대학생들의 상호독립적 자기관결핍과 감정표현불능증의 관계에 대한 정서표현양가성과 정서억제의 효과에 대한 모형(그림 2)은 다음과 같은 점을 시사한다. 정치, 경제, 문화적 격동기인 한국 현대 사회에서 규범적으로는 집단주의 문화적 가치를 강조하면서도, 개인의 행복이나 삶의 만족을 위해서는 개인의 능력을 갖추어야 하는 역설적인 사회적 상황 속에서 청년 대학생들이 상호독립적

자기관을 제대로 형성하지 못할 때, 정서표현에 대한 갈등 수준은 높아지며, 이는 부정적인 정서조절전략인 정서억제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감정표현불능증과 같은 정신병리적인 장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모형에 따르면, 상호독립적 자기관의 결핍은 직접적으로 감정표현불능 수준에 부적인 영향을 주기도 하고, 정서표현에 대한 심리적 갈등 수준을 높이거나 이로 인해 정서억제 수준을 높여 간접적으로 감정표현불능 수준을 높일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최근 이한우와 염동문(2015)은 대학생들의 정서인식 수준과 대인관계의 관련성에서 정서표현양상성과 정서표현의 이중매개효과를 검증하였는데, 이들이 제시한 최종 모형은 현재 연구의 최종 모형과 매우 흡사하다. 이한우와 염동문(2015)은 대학생들의 자기 정서인식 수준을 예측 변인으로 설정하였는데, 본 연구에서 초점이 되었던 감정표현불능증이 자기 정서 인식의 어려움(DIF)을 하위 요인으로 포함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서로 참고가 될 수 있는 모형으로 볼 수 있다. 감정표현불능증이 단지 정서표현의 문제를 지적하는 개념이 아니라, 표현의 부족이 다시 인식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음을 강조하는 개념이므로 (Taylor & Bagby, 2000), 감정표현의 문제는 개인의 정신병리적인 문제를 넘어 대인관계의 문제로까지 확장될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현재 연구는 아래와 같은 몇 가지 제한점이 있다. 첫째, 현재 모형은 탐색적으로 자료수집 후 상호협조적, 상호독립적 자기관과 매개, 종속 변인들과의 관계를 살펴본 후 설정된 모형으로 현재 표본에만 국한된 국지적인 모형일 가능성이 있어 아직 일반화하기 어렵다. 따라서 추가적이고 체계적 표집을 통한 교차타당

화 연구를 거쳐 현재 모형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설문 대상자가 20대 대학생으로 국한되어 보다 어린 청소년이나 중장년층 및 노년층이 포함되지 못하여 연령과 세대 간의 차이를 살펴볼 수 없었다. 최근 연구들은 문화 성향 및 지향하는 가치관에서 세대 간, 계층 간 차이를 보고하고 있으므로(전혜빈, 박혜경, 2018, 차혜경, 2018), 감정인식과 표현 그리고 조절 특성에도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설문 대상을 다양한 세대로 확대하여, 각 세대가 지향하는 가치관과 문화적 자기관에 따른 정서표현과 인식, 그리고 그 조절 방식에 대한 특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로 인해 젊은 세대들의 감정표현에 따른 심리적 문제를 넘어, 세대 간의 정서표현 및 조절 방식에 대한 문제와 특성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 제안해 본다.

참고문헌

- 구자순 (1995). 신세대와 문화갈등. 한국사회이론학회(사회이론), 14, 211-237.
- 김영식, 서용원 (2015). 조직구성원의 개인주의-집합주의 가치지향성이 정서표현 및 호감도에 미치는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산업 및 조직, 28(4), 689-722.
- 김현미, 방희정, 소유경, 옥 정, 김은경 (2006). 한국 남녀 대학생 집단에서 자아해석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1(4), 437-458.
- 김효선 (2013). 긍정정서 억제와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자기해석 양식의 조절효과.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나은영, 차유리 (2010). 한국인의 가치관 변화 추이.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4(4), 63-92.
- 류승아, 김정미, 한 민 (2014). 문화적 자기관에 따라 스트레스 대처방식이 행복 및 대인관계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20(3), 177-203.
- 박하얀, 정운경, 최해연 (2015). 정서표현양가성의 발달과 이에 따른 정서표현성, 문제행동 및 심리적안녕감.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8(3), 189-207.
- 박한나, 허재홍, 오충광 (2017). 정서종류에 따른 정서억제와 안녕감 그리고 대인관계의 관계: 대학생 집단에서 개인 문화성향의 조절효과. *인간이해*, 38(2), 115-130.
- 손재민 (2005). 정서조절 전략 사용에서의 개인차: 인지적 재해석인과 정서표현 억제인의 비교.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신현균, 원호택 (1997). 한국판 감정표현 불능증 척도 개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6(2), 219-231.
- 안신능 (2006). 자기 개념에 따른 자기 불일치와 삶의 만족도의 인과적 관계.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양명순, 하정희 (2006). 자아해석 방식이 우울 및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정서표현 갈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연구*, 17(2), 85-105.
- 임소은, 박혜경 (2015). 문화성향에 따른 거절반응과 예측의 차이.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21(2), 279-297.
- 이양현, 임효덕, 이종영 (1996). 한국판 20항목 Toronto 감정표현불능증 척도(TAS-20K)의 개발과 타당도. *신경정신의학*, 35(4), 888-899.
- 이은경, 서은국, Chu, T., Kim, H., Sherman, D. K. (2009). 정서억제와 주관적 안녕감: 문화 비교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3(1), 131-146.
- 이한우, 염동문 (2015). 대학생의 정서인식과 대인관계 간의 관련성에서 정서표현양가성과 정서표현의 이중매개효과. *정서·행동장애연구*, 31(2), 85-106.
- 정선호, 서동기 (2016). 회귀분석을 이용한 매개된 조절효과와 조절된 매개효과 검증 방법.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5(1), 257-282.
- 정운선, 임효덕, 이양현, 김상현 (2003). TAS-20의 한국판 3종간의 신뢰도 및 타당도 비교. *정신신체의학*, 11(1), 77-88.
- 진효정, 김정규 (2016). 정서인식의 명확성, 정서표현, 자아존중감이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23(9), 83-106.
- 전혜빈, 박혜경 (2018). 사회 계층에 따른 가치 차이: 자기 참조 가치 대 문화 참조 가치.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24(4), 563-592.
- 차혜경 (2018). 대학생의 가치지향성에 대한 주관성 연구. *한국웰니스학회지*, 13(1), 165-177.
- 최해연, 민경환 (2007). 한국판 정서표현양가성 척도의 타당화 및 억제 개념들 간의 비교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1(4), 71-89.
- 최해연, 이동귀, 민경환 (2008). 정서강도, 정서주의, 정서명료성, 및 정서표현양가성의 군집과 심리적 적응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2(4), 59-73.
- 한규석, 신수진 (1999). 한국인의 선호가치 변

- 화-수직적 집단주의에서 수평적 개인주의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3(2), 293-310.
- 한성열, 한 민, 이누미야 요시유키, 심경섭 (2015). 문화심리학: 동양인, 서양인, 한국인의 마음. 서울: 학지사.
- 한아름 (2010). 정서억제와 심리적 안녕감 및 우울 간의 관계에서 자기해석 양식의 매개효과.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홍주현, 심은정 (2013). 정서인식의 명확성과 청소년의 정신건강.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2(1), 195-212.
- Bagby, R. M., Parker, J. D., & Taylor, G. J. (1994). The twenty-item Toronto Alexithymia Scale-I. Item selection and cross-validation of the factor structure. *Journal of Psychosomatic Research*, 38(1), 23-32.
- Bagby, R. M., Taylor, G. J., & Parker, J. D. (1994). The twenty-item toronto alexithymia scale-II. Convergent, discriminant, and concurrent validity. *Journal of Psychosomatic Research*, 38(1), 33-40.
- Baron, R. M., & Kenny, D. A.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6), 1173.
- Dere, J., Falk, C. F., & Ryder, A. G. (2012). Unpacking cultural differences in alexithymia: The role of cultural values among Euro-Canadian and Chinese-Canadian students.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43(8), 1297-1312.
- Dion, K. L. (1996). Ethnolinguistic correlates of alexithymia: Toward a cultural perspective. *Journal of Psychosomatic Research*, 41(6), 531-539.
- Gross, J. J. (1998). Antecedent- and Response-Focused Emotion Regulation: Divergent Consequences for Experience, Expression, and Physiolog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4(1), 224-237.
- Gross, J. J., & John, O. P. (2003). Individual Differences in Two Emotion Regulation Processes: Implications for Affect, Relationships, and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5(2), 348-362.
- Gross, J. J., & Levenson, R. W. (1993). Emotional suppression: physiology, self-report, and expressive behavior.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4(6), 970-986.
- Hayes, A. F., & Preacher, K. J. (2014). Statistical mediation analysis with a multicategorical independent variable. *British Journal of Mathematical and Statistical Psychology*, 67(3), 451-470.
- King, L. A., & Emmons, R. A. (1990). Conflict Over Emotional Expression: Psychological and Physical Correlat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8(5), 864-877.
- Kirmayer, L. J. (1987). Languages of suffering healing: Alexithymia as a social and cultural process. *Transcultural Psychiatric Research Review*, 24(2), 119-136.
- Kirmayer, L. J., & Robbins, J. M. (1993). Cognitive and social correlates of the Toronto Alexithymia Scale. *Psychosomatics*, 34(1), 41-52.
- Konrath, S., Grynberg, D., Corneille, O., Hammig, S., & Luminet, O. (2011). On the social cost

- of interdependence: Alexithymia is enhanced among socially interdependent people.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50(2), 135-141.
- Kooiman, C. G., Spinhoven, P., & Trijsburg, R. W. (2002). The assessment of alexithymia: A critical review of the literature and a psychometric study of the Toronto Alexithymia Scale-20. *Journal of Psychosomatic Research*, 53(6), 1083-1090.
- Le, H. N., Berenbaum, H., & Raghavan, C. (2002). Culture and alexithymia: Mean levels, correlates and the role of parental socialization of emotions. *Emotion*, 2(4), 341-360.
- Markus, H. R., & Kitayama, S. (1991). Culture and the Self: Implications for Cognition, Emotion, and Motivation. *Psychological Review*, 98(2), 224-253.
- Norasakkunkit, V., & Kalick, S. M. (2002). Culture, ethnicity, and emotional distress measures: The role of self-construal and self-enhancement. *Journal of Cross- Cultural Psychology*, 33(1), 56-70.
- Sifneos, P. E. (1973). The prevalence of 'alexithymic' characteristics in psychosomatic patients. *Psychotherapy and Psychosomatics*, 22(2-6), 255-262.
- Singelis, T. M. (1994). The Measurement of Independent and Interdependent Self-Construal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0(5), 580-591.
- Swart, M., Kortekaas, R., & Aleman, A. (2009). Dealing with feelings: characterization of trait alexithymia on emotion regulation strategies and cognitive-emotional processing. *PLoS One*, 4(6), e5751.
- Taylor, G. J., & Bagby, R. M. (2000). An overview of the alexithymia construct. In R. Bar-On & J. D. A. Parker (Eds.), *The handbook of emotional intelligence* (pp. 40-67). San Francisco: Jossey-Bass.
- Taylor, G. J., Bagby, R. M., & Parker, J. D. (1991). The alexithymia construct: a potential paradigm for psychosomatic medicine. *Psychosomatics*, 32(2), 153-164.
- Taylor, G. J., Bagby, R. M., & Parker, J. D. (2003). The 20-Item Toronto Alexithymia Scale: IV. Reliability and factorial validity in different languages and cultures. *Journal of Psychosomatic Research*, 55(3), 277-283.
- Vaillant, G. E. (2000). Adaptive mental mechanisms: Their role in a positive psychology. *American Psychologist*, 55(1), 89-98.
- 논문 투고일 : 2019. 01. 25
1 차 심사일 : 2019. 01. 29
게재 확정일 : 2019. 05. 14

The Relationship between Korean college students' Self-Construal and Alexithymia: Mediation Effects of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and Emotion Suppression according to the Deficiency of Independent Self-Construal

Soyoung Kwon

Jarang Kwak

Bia Kim

Donghoon Lee

Dept. of Psychology, Pusan National University

Alexithymia refers to a psychological deficit of identifying and describing one's feelings. It has been reported that the level of alexithymia of East-Asians is generally higher than that of Western Europeans. Recently one research conducted in U.S. suggested that the interdependent self-construal from East-Asians' collectivism culture might be a cause of this cross-cultural difference. In the current study, we examin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level of independent and interdependent self-construal of Korean college students and their level of alexithymia, as well as their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and emotion suppression. The correlation analysis shows that the Korean students' alexithymia level does not correlate with their level of interdependent self-construal, but negatively correlates with their level of independent self-construal. Moreover, it is also correlated with the level of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AEE) and emotion suppression(ES). Thus, we setup a double-mediation model between the deficiency of independent self-construal and alexithymia via AEE and ES, and estimate mediation effects using Hayes and Preacher(2014)'s Process analysis. The results show that the deficiency of independent self-construal has a direct effect as well as indirect effects of AEE and ES on the alexithymia level. Further analysis on the indirect effects reveals that the mediation effect of AEE and the double mediation effect of ES via AEE are significant, but the mediation effect of ES is not significant. Current results imply that the interdependent self-construal from the traditional collectivistic culture may not cause Korean college students' problems on the emotional expression, but the relatively lower independent self-construal may cause them. The deficiency of independent self-construal may raise up the level of self-defensive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and suppress emotional expression by themselves, which can result in alexithymia.

Key words : Interdependent Self-construal, Independent Self-construal, Alexithymia, Emotion suppression,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